2009 光州日報 테마 **경제회생 다시 뛰시다**

광주·전남 이끄는 4대 성장 동력

1 광산업 '희망의 빛'으로

광주의 광(光)산업은 올해 '희망의 빛'을 더욱 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로 추진 10년을 맞는 광주 광산업은 그동안 비약적인 발전을 해왔다. 1999년 1천136억원이던 매출액은 지난해 1조2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업체수도 1999년 47개에서 10년만에 320개로 늘었고, 1999년 1천896명에 불과했던 광산업 종사자는 지난해 5천850명에 이르렀다.

2010년에는 광주가 명실상부한 광산업 집적지로 자리 잡으면서 총 생산액은 7조185억원, 부가가치는 2조340억원, 고용인원은 4만9천명에 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 10월에는 '2009 광주세계광엑스포'가 열려 세계에 광주 광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알리게 된다.

광주시는 광엑스포 개최로 인해 3천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4천여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올해부터 2012년까지 4년간은 한국 광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3단계 사업이 추진된다.

526억5천만원이 소요되는 3단계 사업은 LED와 신 디스플레이 개발, 光바이오 의료 및 레이저 정밀가공 분야 개발에 주력해 아시아 최고의 광집적지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2 클린디젤 자동차 새 활로

자동차산업은 광주지역 제조업 매출액의 30%대를 점유하고 있다.

단일 산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장도 크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은 2000년대 이후 괄목할만한 성장을 해왔다. 2001년 연산 15만대이던 생산량은 2007년 34만대로 늘었고 매출액도 2001년 1조400억원이던 것이 6년만에 5조1천억원으로 폭발적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고용은 5천800명에서 6천700명으로 늘어 생산량과 매출액 증가만큼은 아니지만 증가했다. 이는 대형버스나 트럭 중심이던 생산라인을 스포티지와 소울 등 승용차 위주로 전환한데 따른 것이다.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로 소비가 침체되면서 올해 자동차산업의 전망은 좋지 않다. 기아차 광주공장도 지난해 말부터 감산에 들어가 소비침체의 여파를 피해가지는 못했다.

그렇다고 자동차산업이 광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떨어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올해부터 클린디젤 자동차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자동차부품 연구개발단지를 조성해 차세대 신성장동력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클린디젤 자동차 산업'을 본격 육성할 방침이다.

2015년까지 3천억원을 투입해 클린디젤 자동차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부품 기술과 소재 개발, 산학연 공동연구 등을 통해 지역경제는 물론 국가경제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3 J프로젝트로 돌파구

전남의 최대 역점사업인 J프로젝트(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개발계획)과 관련 지난해가 악몽의 한 해로 기억될만 하다. 전체 6개 개발지구 중 5개 지구 특수목적법인(SPC)이 설립됐고 이중 삼호·구성·초송 등 3곳에 대한 개발계획 승인 신청이 2007년 11월 이뤄졌지만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심의위를 통과하지 못한채 1년 넘게 지지부진하고 있다.

더구나 간척지 양도·양수문제로 농림부와 갈등을 빚어 왔던 초송지구를 제외하고 삼호·구성지구 2곳만 우선 추진키로 하는 등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이러다간 J프로젝트 개발계획에 대한 전면 수정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J프로젝트의 선도사업인 F1 대회도 첩첩산중이다.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3천400여원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 난항을 겪고 있으며 공사비 지급중단으로 경주장 공사가 한때 중단되기도 했다.

하지만 전남도가 J프로젝트에 대한 강한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어 올해는 어떤 형태로든 사업이 진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박준영 전남지사는 정부와 조속히 합의점을 찾아 승인절차를 마무리하고 하반기에는 1단계 사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또 농림부가 농업법인 사업을 공고했지만 송천지구도 올해 안에 SPC를 설립해 5월께 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혀 J프로젝트를 본 궤도에 올리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4 영산강 프로젝트 시동

영산강 뱃길복원을 골자로 하는 '영산강 프로젝트'는 이명박 정부들어 현실화된 전남지역의 신 성장동력 산업이다.

지난해 12월 20일 나주시 영산포에서 기공식을 시작으로 사업이 본격화됐다. 영산강 프로젝트는 2015년까지 하도준설을 비롯해 총 34개 사업에 8조5천550여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내년도 국비예산 1천811억원은 이미 확보해 놓은 상태다. 이 프로젝트는 영산강 뱃길을 되살리는 사업과 수질개선에 초점이 맞춰진다.

2015년까지 영산강 하구둑~광주 광산대교(83.59㎞)에 이르는 구간을 폭 60~70m, 수심 6m 정도로 준설해 뱃길을 복원하는 사업이 주내용이다. 이와 함께 수질개선사업과 영산강 주변 관광개발사업이 복합적으로 추진돼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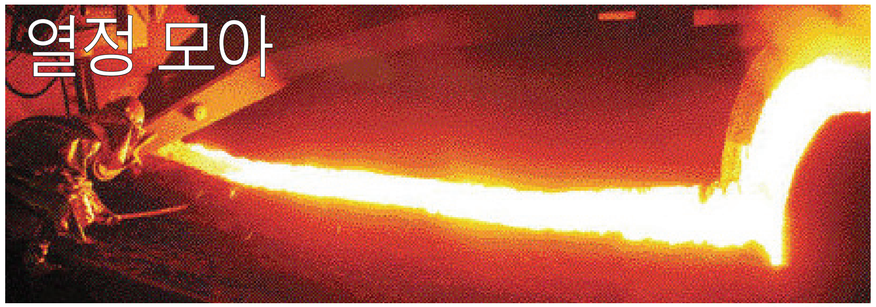
1단계로 2009년부터 2010년까지는 하도 준설과 하수종말처리장 건립 등 수질환경 개선사업에 집중된다.

2단계인 2010~2012년까지는 영산강을 횡단하는 3개 교량을 개보수하는 한편 영산강변에 전원마을과 은퇴자 뉴타운 등을 조성한다. 3단계인 2012~2015년까지는 영산강 주변에 컨벤션 타운, 심버타운 등을 건설하는 등 본격적인 관광개발이 진행된다.

일부에서는 이명박정부의 대운하 전초사업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수질개선과 관광지 개발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대한조선 제공〉



〈광양제철=나명주기자 mjna@〉

〈금호아시아나 제공〉

각계 CEO가 띄우는 희망 메시지

사회적 역할·책임 다하도록 힘 쏟을 것

오세철 〈금호타이어 대표〉

지난해 국내 경제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다. 올해 역시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내수시장 위축 등 잠재적 위기가 여전한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갖은 어려움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저력이 있기 때문이다.

금호타이어도 새해를 맞아 광주·전남의 지역경제와 지역민들을 위해 힘찬 도약을 다짐하고 있다. 창립 50주년을 맞아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데 혼신의 힘을 쏟을 것이다. .

지역 상품 판로 확대…불황 타개 나서야

이장환 〈광주신세계 대표〉

슬기롭게 불황을 이겨내자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각계 각층의 노력이 필요한 시기다.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마냥 움츠러드는 것이 되레 불황을 장기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유통업계는 불황이 찾아올 때마다 해결책을 고객에게서 찾곤 한다. 고객들이 어떤 가격과 서비스를 원하는지를 명확히 알고 이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더불어 유통업체들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상품에 대한 판로를 확대함으로써 지역 상공인들의 불황 타개에 일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잇단 대형사업 호재로 건설업계 숨통

김규룡 〈영진건설 대표〉

2009년 새해는 광주·전남의 건설업계에 있어 최대 위기이자 기회로 꼽힌다. 지난해 극심한 경기침체의 여진이 여전하지만 지역내 각종 대형사업 추진도 급물살을 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SOC예산관련 예산을 지난해보다 10% 이상 증액하고, 영산강 등 4대강 정비사업 추진 등에 대한 예산 조기집행을 추진중이다.

광주·전남도 각종 대규모 사업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어 다소나마 위안이 되고 있다. 여수세계박람회와 나주 혁신도시, 광주 문화수도 조성 등은 지역 건설업계에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된다.

어려울수록 투자 늘리고 공격 경영 필요

조애옥 〈한국에텍 대표〉

2008년은 엄청난 시련의 시절이었다. 제조업체 등 산업계 전반이 폭등하는 환율과 꽁꽁 얼어붙은 경기, 자금압박 등에 시달려야 했다.

하지만 한겨울의 강추위를 견뎌낸 홍시가 더 맛이 있는 것처럼 새해에는 더욱 희망찬 나날이 이어질 것임을 확신한다.

국내 실물경제가 위축되고 있지만 이럴 때 일수록 과감한 투자와 공격적인 경영이 필요할 때라는 생각이 든다. 2009년 새해야말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경영기법이 요구되는 시기인 셈이다.

모쪼록 광주·전남의 지역민들도 희망을 갖고 함께 힘을 모아 현재의 난국을 이겨냈으면 하는 바람이다.

과거의 미련 버리고 공동 번영 추구하길

이정남 〈테라이엔씨 대표〉

2008년에는 줄어든 것과 늘어난 것이 유난히 많은 한 해였다. 불황으로 국내 제조업계의 매출이나 이익은 줄어든 반면, 재산성 및 자산가치 하락 등에 따른 업계의 부채는 눈덤이 처럼 불어난 것이다.

하지만 새해에는 작아진 것에 대한 미련과 안타까움보다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여유를 가져봤으면 한다. 나아가 올해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개나리'라는 견해사(개인과 나라의 이익을 위하여)가 갖는 의미처럼 공동의 번영을 추구하는 한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올해는 굵은 빗줄기가 아닌 아름다운 희망의 무지개를 감상할 수 있는 새해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굳은 의지로 지역경제 환하게 비추자

송기진 〈광주은행장〉

2008년은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 우리 경제의 근간이 흔들렸던 한 해였다. 하지만 '새웅지마(塞翁之馬)'라는 말처럼 새해에 거는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새해 첫 날이 좋은 것은 늘 새로운 희망으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가 힘들고 어려운 한 해였다면 올해는 '기축년(己丑年)' 소의 해가 상징하듯 풍요와 여유가 가득 한 새해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

어려운 때일수록 견인불발(堅忍不拔·어떠한 곤경에도 마음이 흔들리거나 빼앗기지 않음)의 정신으로 마음가짐을 새로이 해야 한다. 모두가 굳은 의지를 갖는다면 지역 경제도 환하게 밝아올 것이다.

경제 위기를 경쟁력 갖출 수 있는 기회로

박치영 〈모아건설 대표〉

지난해 광주·전남 주택건설업계는 시장 침체의 여파로 가장 어려운 한 해를 보냈다. 올해도 건설업계는 물론 전반적인 경제상황이 예측 불허의 상황이다.

그러나 작금의 위기는 탄탄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건설업계도 신규사업에 치중하기 보단 임대 및 리모델링, 수익형 부동산사업 등의 틈새시장 공략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정부 역시 부동산규제 완화에 긍정적인 분위기에서 미분양주택 해소 등을 기대해볼 수 있다. 또 영산강 뱃길복원 등 각종 SOC사업은 지역 건설업계에 호재가 될 것이다.

2009년, 위기극복 드라마를 기대한다

형기우 〈동양화학 대표〉

우리에겐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던 경험이 여러 번 있다. 1974년 유가폭등과 경상수지 적자로 국가 부도위기에 처했을 때 국가와 국민이 하나가 되어 이를 극복했었다. 또 1998년 외환위기 때에는 장롱 속의 금붙이와 패물까지 들고 나와 경제 살리기에 동참하는 등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비극을 희극으로 만들어내곤 했다.

어려울에 봉착할 때마다 그 어느 국가보다도 빨리, 그리고 슬기롭게 대처해 왔던 우리 국민이 2009년에는 어떤 위기극복의 드라마를 준비하고 있을까? 지난해 경기침체의 깊은 계곡만큼이나 2009년 새해에는 경제활성화의 높은 봉우리를 만들어낼 것으로 확신한다.

개선과 발상의 전환 통해 재성장 발돋움

김창수 〈현성테크노 대표〉

신년에 대한 희망조차 품기 힘들 만큼 경제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지난 한 해는 국내·외 각종 악재로 인해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고, 소비도 급격히 위축됐다.

하지만 돈은 '돌아야' 그 가치가 있다. 어려운 때일수록 투자에 주저해서는 발전이 없다. 개선과 발상의 전환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때 보다 나은 성장이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의 상황이 불황이라는 거친 파도를 만나 힘들지만 더욱 경계해야할 것이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다. 새해엔 자욱한 안개가 걷히고 밝은 태양이 비추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경제 다시 살리자

손안상 〈시루연 대표〉

2008년 묵은해는 우리 기업들에게는 하루하루가 천년같이 느껴졌던 나날이었다. 중소기업은 하루에도 몇십개씩 도산위험이 상존하고, 대기업도 인원감축과 조업단축 등이 잇따랐다.

하지만 아무리 골이 깊은 불황이라도 호황을 누리는 사업이나 기업은 반드시 있기 마련이다. 또 그들의 공통점은 남다른 희망과 의지를 갖고 열심히 뛰었다는 데서 찾아볼 수 있다. 어려움을 기회로 만들겠다는 신념이 바로 성공을 이룬 밑바탕이 된 것이다. 광주·전남의 경제도 모두가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한다면 머지않아 호경기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